

## ◎ 교회목표 ◎

- 천국시민 양성
- 만민에게 전도
-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 행동지침 ◎

-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민족과 국기를 위해 기도한다.
-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 공산권 신학교설립 답사팀 파송 7월 9일 (월) 출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본 교회에서 기도해오던 공산권 선교를 위한 신학교의 설립이 마침내 기도의 잔이 차게되어 우리의 가시 권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눈을 감기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이에 우리 교회는 7월9일 이종윤 목사와 장로박철훈, 오정수, 김광신, 이영기와 피택장로 이복규등 12명이 현지 답사 팀으로 파송케된다.

그들은 장차 우리의 선교지가 될 장소를 발로 밟으며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기도할 것이다.

### 여름 수련회 시작된다

여름 수련회의 시간이 다가왔다. 올해의 수련회 및 성경학교의 주제는 '임하소서 성령이여'로 성령이 임하시는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가장 먼저 수련회를 시작하는 부서는 새가정부, 대학부, 청년부로 7월15일(주)부터 19일까지 강원도-치악산 관광농원에서 개최된다.

다. 해당 부서의 부원들은 자신의 휴가기간을 조정하여 적극 참여하여 함께 은혜 받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 2001년 농어촌 전도봉사대 대상교회 확정

전도위원회에서는 8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전도대를 파송하여 지원할 농어촌 교회를 전북 완주 모악제일교회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전도대원 구성과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전도대 파송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농어촌 전도대가 파송되는 모악제일교회는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안양우 전도사가 사역을 하고 있는 농촌 교회이다. 이 지역은 원기리(상학, 하학), 대천리에서 약 2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이중 주일학교 아동부 35명, 중고등부 12명, 장년 30명이 모악제일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 교회에서는 여름성경학교와 축호전도, 노방전도 지원, 주변 환경 정리 등 이발 미용 봉사, 안경, 전기기술 등 지원을 원하고 있다. 이번 농어촌 전도대는 예년처럼 경제화 된 청-장년 40-45명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농어촌 교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펼쳐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전도위원회에서는 농촌 전도대 활동과 관련, 전도에 필요한 용품이나 의료, 미용기구, 생필품 등도 모으고 있다. 2001년 농어촌 전도대로 지원할 성도나 물품 제출에 관한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 단기선교 여름계속 -파송준전

우리교회가 태국으로 파견하는 단기선교팀이 파송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6주 앞으로 다가온 일정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선교팀에서는 온 교회의 관심과 기도의 후원을 부탁드리고 있다.

이 신학교 설립이 막막하고 고난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나 종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에 공산권 신학교 설립 답사팀을 파송하며 성도들은 기도를 응답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현지 답사일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뤄지기를 간구하여야 한다.

### 찬양대의 찬양위치 바뀐다

우리 교회는 보다 활력 있고 은혜 받는 주일 예배시간이 되도록 오는 9월 첫 주일(9월2일) 예배부터 찬양대의 찬양위치를 조정하여 주일 낮 I II III부 예배시 찬양대는 찬양순서시간에 강단 앞 계단에 나와 찬양을 드리게 된다.

각 찬양대는 현금시간에 계단으로 이동하게 되고 대원들은 현금을 미리 입례송전에 하고 현금시간에는 바구니를 위원들에게 전달한다.

성도의 교제 시간도 찬양 후로 변경되어 이 시간에 찬양대원은 조용히 제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찬양대원들은 대장 책임 하에 예배위원의 협력을 받아 2개월 동안 입-퇴장 연습을 하여 엄숙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한다.

### 2001년 하반기 교사임명

교육위원회는 2001년도 하반기 신임교사 63명을 임명하였다. 새로 임명 받은 교사들은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이가  
천국의 주인이라셨죠  
맥추감시절 행사  
-교육1국의 재통잔치

- 생명을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
- 유아부: 김다희
- 유아부: 김종윤, 이성우, 강민정
- 유년부: 권지향, 윤숙희, 강유진
- 초등부: 유은철, 안재명, 황지영, 전정숙(부감)
- 어린이 찬양예배: 이근대, 소은희, 김경숙, 유수진, 꽈소은, 이조은, 이은아
- 중등부: 원영애, 최희경, 손대길, 이민호, 이종엽, 황의호, 강신실
- 고등부: 송경점
- 고등부: 정동호, 최차순
- 청년부: 김영미, 김상옥, 배현돈, 이인숙
- 청년부: 사랑부: 이길재
- 에바다부: 최임수, 김상화, 김미향, 문형순, 이경희, 윤주현, 전인화, 이용자
- 안인호 (부감)
- 새가족부: 이종순, 고정숙, 최혜경, 김광룡, 서희숙
- 새가정부: 손재경(부감)
- 장년2부: 오정수, 홍성주
- 장년3부: 유을상, 최용걸, 이옥희, 강애자, 이인선, 김영준
- 장년4부: 이경구, 정병무, 윤찬오, 김혜경(부감)
- 장년5부: 최임수, 함은희, 김명숙, 손재경, 이규희, 김영우

이사야서 강해

# 새 일을 행하리니



이중윤 목사

철이 든 사람은 나이 값을 해야 하고 자리 값을 해야하고 이름 값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집'이란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름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1절). 이스라엘은 축복 받은 이름입니다(창 32:22 - 32). 또한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1절)는 말은 메시아가 오실 유다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참으로 놀라운 이름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름 값을 못했습니다.

## 1. 유다는 진실과 공의가 없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랑스런 이름을 붙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스스로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공의가 없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① 유약한 모습 – 유약한 사람은 온순하고 좋은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채 구태의연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말하면서도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고 그를 죽이는 우를 범했습니다. 옛 사람,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유약한 자들은 흔히 배은망덕합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빙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요 13:18). 이것은 가룟 유다를 가리킨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배은망덕한 사람은 큰 익혜를 입고도 돌아서서는 그 익혜를 곧바로 잊어버립니다.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죄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놋이라"(4절). 목의 힘줄이 무쇠라 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민한 목을 곧게 세우고 숙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마는 인격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이마가 놋이라 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합니다.

## (이사야 48:1 - 11)

② 태만한 모습 – 태만은 자기를 뜯어고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자세입니다. 자기 변화는 없이 기회주의 자로 기회를 찾아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유교사상에 물들어 이런 태만한 정신이 많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은 들으나 마이동풍처럼 자신을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죄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놋이라"(4절). 이런 사람들은 편리주의 안일주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어서 나만 편하면 된다는 주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③ 외식하는 모습 – 형식을 내용보다 중요시하는 처세입니다. 기독교는 진실을 위주로 하는 종교이지 외식을 위주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외식주의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위선과 외식은 진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면세계는 번약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이름과 좋은 간판만 갖기를 원합니다. 위선자와 외식자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이마는 놋으로 되고 목은 쇠줄로 된 사람들도 부서질 수 있습니까? 선지자는 이것이 예언 성취를 통해서 진실이 회복되고 공의가 회복되므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 2. 하나님은 유대를 해방시키신다

유대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에 입성케 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진실성은 이미 드러났으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순교자 Justin은 구약의 예언 성취를 읽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의 글이 나를 가리켰다고 하셨습니다(눅 24:44). 사도들도 구약을 인용하며 '그 분이 이 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Pascal은 구약의 예언 성취가 기독교의 진실성을 증거하는 최대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어떤 사람이 몇일 후의 일을 추측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누가 몇 백년 후의 일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백 여년 후에 나타날 고레스 왕의 이름까지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사 44:28). 본문 4절로 8절에서는 3절의 내용을 두 번씩이나 중복하여 역설하면서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예언 성취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브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과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선지자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자세히 주장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들은 그 당시 사람들만 체험하고 우리는 기록으로 믿을 뿐이지만 역사를 변동시킨 예언

성취의 사건은 역사의 흔적을 통해 더 실감 있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예언은 우상숭배자나 점술자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 성취는 ① 하나님만 참된 신 이심을 더욱 믿게 하며 ②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니 마귀에게 속거나 끌려가지 않게 하고 ③ 보고 들은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이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대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해방될 것을 예언한 것을 자세히 상고하여 전파하라고 하십니다(6절). 이 일을 '새 일'이라 함은 사람들이 그 때까지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일을 창조된 것(7절)이라 함은 하나님이 하신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예언하게 하지 않으시면 간교한 인생들은 '내가 이미 알았노라'(7절)고 할 것임으로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 3.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심은 그들에게 어떤 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심하였습니다(9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베벨론에게 계속 학대를 받는다면 그들에게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멸시를 당할 터이므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9절). 하나님은 더 이상 노하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②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연단 시키므로 회개하여 바르게 되도록 하시려고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은처럼 연단하지 않으셨습니다(10절). 은을 연단 할 때는 불순물만 제거하면 됩니다. 거기에 특별한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법대로만 연단 시키신 것이 아니고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망하지 않도록 택하여 건져내셨습니다.

③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본문 11절에는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이것은 강조용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11절).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망한다면 우상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유대 민족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윤** 성남 집사(3교구)는 72년도에 자동차 정비업에 몸담은 후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양재동에서 서울 오토 정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최근에 병 부상을 당하였다. 병환으로 조금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것이 못내 아쉽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다.

윤집사 가정은 할아버지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4대째 믿음을 지켜오고 있으며 82년에 이영희 집사와 결혼하여 훈민, 효민, 효은 삼 남매를 두고 있다. 윤 집사는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와 장년 3부 부감을, 이 영희 집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섬기고 있다.

부친이 고향에서 농군학교를 경영하셔서 윤 집사는 어려서부터 농기계를 접할 기회가 많기도 했지만 유난히 기계에 많은 집착을 보였다. 군대에서도 주로 중장비와 발전기, 건설기계 등을 정비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제대 후에 자연스럽게 자동차 정비업에 몸을 담게 되었다.

그 누군들 고생이 없었을까만 윤성남 집사와 이영희 집사도 크고 작은 골짜기를 넘는 삶을 살았노라고 지난 날을 회상한다.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는 윤 집사는 가족의 생계를 뒤로 한 채 오랜 시간 동안 자동차 엔진을 연

구하여 특히 험난한 일에 몰두했고 그간 이 집사의 눈에는 눈물 미를 날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그만큼 자동차를 사랑하고, 덕분에 '자동차 박사'라는 별명도 얻게 되어 유수한 자동차 회사에서도 그에게 종종 자문을 구한다. 어찌 보면 직장생활이 그에게는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업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때때로 손님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일이 생기기도 하여 도무지 신앙 양심이 그것을 허락지 않아 자영업을 계획했다. 이 영희 집사는 그 때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신 6:11)라는 말씀을 붙잡고 1년이 넘도록 기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 영희 집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은 가게를 시작하기에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다.

## 예수님을 기업주로 모시고 서울 오토 정비 센터

처음에는 송파에서 시작한 정비 센터는 지금의 양재동 자리로 옮기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대는 과연 정보시대라서 다녀간 손님들이 인터넷에 '자동차'를 매우 잘 고치고 양심적인 업소다. 여성들이 믿고 갈 수 있는 업소다라는 글을 올려서 네이버들의 발걸음이 줄을 잊고 있으며 이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 직장생활하면서 수 년간 섬기던 시온찬양대(수요예배)에 나가지 못하고 교회를 마음껏 섬기지 못해서 마음이 답답하다. 이것은 돈을 더 벌어야 돼서가 아니라 믿고 찾아온 손님들이 기다리는 것을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원을 두 명 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직장 예배도 드리고 신앙과 기술을 함께 전수할 후진을 발굴하여 기독교 기업으로서 서울 오토 정비 센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넓은 기업장을 주십사하고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윤집사는 자신이 부친을 보면서 무언의 신앙교육을 받은 것처럼 아이들 또한 아버지인 자신이 신실하고 충성되어 하나님을 섬기므로 무언의 신앙교육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

허숙(편집부)

## sky 2001 전도집회를 마치고 신성훈(청년부)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네요. 이 여름엔 많이도 웃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름을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 계절 가운데 깃들인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에 웃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이죠. 이번 전도집회를 되돌아보면 그 영광 가운데 일부입니다. 대학생, 청년들의 준비함이 있었고 그곳에 올 수 있도록 배려하신 아버지의 섬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했던 형제와 자매에게도 동일하게 준비해오신 아버지셨습니다. 저의 전공은 아랍어를 배우는 특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과 이슬람에 대해 많은 접촉이 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 가운데도 이슬람으로 입적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하지만 언제나 놓지 않는 건 그들 가운데에서도 동일하신 아버지의 신실함입니다. 이번에 함께 온 자매는 무슬림이었고 형제는 카톨릭이었습니다. 어릴 적 동네 교회학교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로 향하긴 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누군가 심어 놓은 씨앗이 먼 후에라도 움틀 수 있는 강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자매와 형제를 위해 아버지는 자신의 시간표를 섭세히 배열하셨습니다. 전 단지 준비된 전도집회에 데려온 것 밖에 없고 손잡고 가자 한 것 밖에 없는데 하나 하나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한 평생 웃어야 할 것 같습니다. 때론 아파할 때도 있겠지만요...

그리다 또 웃겠죠. 웃다 웃으면 안된다던데..... 안타까웠던 건 첫 날에 참석하고 둘째 날은 참석치 못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 설교에 예수님의 계셨기 때문입니다. 섭섭했죠. 하지만 오늘 아르바이트를 하며 서가에 꽂힌 자주색과 남색 케이스의 성경이 내 맘에 들어 왔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형제에겐 남색 성경을 자매에겐 자주색 성경을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로 주어야지 하는 생각에 또 웃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야지. 그러면 아버지를 알게 되는데... 또 섭세하신 아버지의 매력을 느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얘기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복, 더 크게 뿌려 주는 복덩이가 되어야지....

## 현혈, 각막기증현장 스케치

## 합격하셨군요 축하합니다!

대학에 합격했나요?

아닙니다.

7월 1일 서울교회 102호에서 있었던 사랑의 현혈 및 각막기증 행사에서 혈압과 간단한 검사에 합격했습니다. 그것이 축하할 일이냐구요?

예! 바로 건강하다는 의미이지요.

이 날 현혈을 하기 위해 왔던 50여명의 젊은이들이 합격을 하지 못했다는군요. 이유는 빈혈과 체중 미달 등 기타 건강 상의 이유로...

따끔한 바늘의 꽂힘을 제외한 어떠한 아픔도 없었습니다. 잠시 팔이 저려도 이리한 고통보다 수술중에 혹은 질병으로 혈액이 필요한 많은 환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2년 전 반포동에서 참여하고 싶었지만 감기약 복용으로 낙방(?)해서 아쉬웠는데 다시금 이런 행사가 있어서 주저 없이 참여했다는 집사님.

어느 권사님께서는 2년전에는 참여했으나 이젠 나이가 많아서 안된다고 하더라면서 아쉬운 발길을 돌리시는 모습을 보며 삽박해지는 현실에서도 서울교회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날 현혈자는 75명, 각막기증자는 14명, 시신 및 기타 장기기증자는 15명으로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또한 5시 넘어서 오셔서 아쉬워하며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도 계셨구요.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유은경(편집부)



## <10년사 편찬팀>에서 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회의 10년의 과거사를 정리하고 있는 10년사 편찬위의 심부름꾼 임훈규 장로입니다. 새예배당 입당과 함께 맞게된 우리 교회의 10주년은 어느 해 보다 더 깊은 은혜와 의미를 준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서울 교회의 또 하나의 과제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분주하게 앞만 보고 달려오던 교회인지라 각 부서마다 그간의 사역에 관한 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역과 전반적인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개하는 책자 마련이 시급합니다. 10년사 편찬위는 10년사에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고자 합니다.

각부서 부감이나 서기직을 맡고 계신 분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하셔서 귀 부서에 대한 글을 편찬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부서 : 12개 교회 학교, 교구, 남·녀 전도회, 각 찬양대

2. 내용 ①부서 조직 현황

②부서의 목적, 사역의 비전, 특징 / 지난 10년 간 사역의 간단한 소개

③집회 형식 / 양육 체계 / 시간 운영 등

3. 일시 : 7월 22일 (주일)까지

4. 제출방식 : 서울교회 사무국

**새로 왔어요  
식당 부엌에서  
봉사하는 남자**

-하나님께서 날씨를 궂게 만드셔서 저희 교회 등록하셨다면서요?

1월에 눈이 많이 와서 차가 움직일 수 없어 분당에 있는 교회를 갈 수가 없어 서울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이 인연이 되었고 이 목사님도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시무 하셨기 때문에 낯설지 않았지요. 결정적인 계기는 구정 때 성경통독에 참가하게 되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예수 님은 난지도  
김광신 장로 (1교구)**

지금의 난지도는 높은 언덕에 푸른 풀과 나무가 있고 숲이 우거진 공원 같은 단지모양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신기한 장소로 변했는지... 더구나 18홀의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하니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무엇이 난지도를 저토록 아름답고 귀하게 바꾸도록 하였는가이다. 사실을 말한다면 난지도의 밀바닥에는 서울시에서 배출된 온갖 쓰레기가 수십 년 쌓였었고 그곳을 지날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악취로 코를 막고 지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의 변화산으로 탈바꿈하였으니 참으로 대견할 뿐이다. 썩고 썩어서 냄새가 나오 악취가 나는 우리 인간들이 난지도가 아니었던가.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었고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배척받고 멸시받던 우리들이었다.

여느 수료식도 다 나름대로 뜻깊고 의미가 있는 자리겠지만, 예 바다부의 수화교실 수료식은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감동의 자리였습니다.

작은 서툴지만 그간 배운 수화로 이야기하는 지체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은 텁별로 나뉘어 침묵과 고요 속에 손짓만으로 공연을 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보는 이들의 감탄과 환호성을 자아내게 하고 감격에 거운 박수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모두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높아인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귀먹고 어눌한 언어·청각장애인을 만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예수님께서 에바다(열리라)고 외치시고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 치유된 이 사건의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기 위해 서야 할 그 사람이 내가 아닐까. 정작 들을 것은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 머거리이며, 내가 하는 말하는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요?

아이들(상철:20세, 상미:18세)이 큰 탈없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자라서 감사하며, 어떤 일이 끝날 때쯤에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배 중 느낀 점은?

예배 중 찬송 부를 때 남자성도 한 분이 마이크로 리드 해주시면 좋겠어요. 새벽기도회나 주일예배 시 설교는 은혜롭게 잘 들었는데 막상 찬송에는 리더가 없어 회중이 함께 찬송하지 못하여 갑자기 분위기가 가라앉아 안타까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인도자를 따라 마음놓고 찬송을 불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교사로 봉사한 두 분이 우리교회에서 느끼신 점은?

봉사만 하다가 새가족부에서 대접을 받으니 기분도

좋고 정착하는데 큰 힘이 됐어요. 교회식당 부엌에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무거운 것도 옮기고 설거지도 하며 즐겁습니다. 남성분들이 많이 필요하더군요. (새가족 남자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저랑 같이 봉사해요.)



역사가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새롭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죽음 같은 분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야만 했다. 어떤 치료방법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십자가 사건이 출현으로 난지도가 소생하는 것 이상의 변화가 우리 앞에 전개되었다. 이것은 세상적인 사건이 아니기에 말과 글로 표현할 수도 없고 년년새새 기록해도 그 내용이 다 포함될 수도 없다. 다만 예수님의 낫아지심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난지도 같았던 우리모두가 골프장을 세울 정도의 신천지로 변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감격과 환호와 부르짖음으로 꽉 찰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 힘으로는 난지도 이상일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를 만드셨고 그 귀한 역사의 현장에 너와 내가 동참하게 된 것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롭게 단장된 단지 위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난지도가 되신 예수를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뿐이다. 이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18홀의 넓은 잔디밭을 일구어야 하겠고 그것을 위한 헌신에 내 몸을 던져보고 싶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손'**

**김정란 집사 (6교구)**

있는지 모르고 불협화음만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침 받기 위해 간구 하는 나의 예수님께 향한 믿음과 사랑은 어떠한 가를 되돌아보게 한 많은 도전과 더불어 믿음을 견고히 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수화가 하나님의 언어로서 확고히 정착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설레임과 기대 속에 시작하여 기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은 에바다부가 수화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을 확신하며 누구보다 지난 6개월을 더 큰 기쁨과 뿌듯함 속에서 지내셨을 수화교실 수강생들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동정**

- 최용걸 집사, 최일춘 권사 가정 - 승용차 1대 헌납
  - 장경원 오숙영 성도 (3교구가정) 득남
  - 박선영(중등부) -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유망신예초청연주회에서 바이올린 협연
- 7월 10일(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오후 7시 30분
- 신임 직원 인사발령: 운전기사 박우찬 성도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홍승전 집사 황정임 권사 가정  
- 은혜 중에 자녀결혼식을 마치고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입당감사와 축제위원회 10대행사를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여름철 교회행사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I 부 오전 11시
예 배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한남대교 성수대교 영등대교**



대치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 거리